

유상철의 차이나 워치 시진핑의 2025년 반부패 운동

# “이젠 민생 값아먹는 부패 개미 싹 다 잡아들여라”

유상철  
중국연구소장



‘호랑이 때려잡기에서 이젠 개미 박멸되치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적결 대상이 바뀌고 있다. 시 주석은 “생물은 반드시 먼저 썩은 뒤 벌레가 생기 마련(物必先腐 而後蠹生)”이라며 집권 초인 2013년 1월 “호랑이든 파리든 다 때려잡아라”고 외쳤다. 신조어 타호박승(打虎拍蠅)의 출현 계기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패분자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엄명이었다.

2014년 초엔 장사가 썩은 팔을 잘라내는 장사단완(壯士斷腕)의 용기로 부패 적결에 나서라고 다그쳤다. 또 그해 여름엔 해외로 도주한 부패사범을 여우라 칭하며 이들을 잡는 여우사냥(獵狐)을 시작했다. 이처럼 해마다 반부패 단속의 중점에 변화가 있는데 올해는 개미가 등장했다. 연초 열린 중앙기율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주요 적결 대상으로 파리의 탐욕과 개미의 부패(蠹貪蠹竊)를 지목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얼마 전 ‘털끝부패(微腐)를 처벌해 백성들이 느끼게 하라’는 글을 실었다. 왜 이런 캠페인을 벌일까? 혹시 더는 잡을 호랑이가 없어지거나 한 걸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대개 호랑이급 부패 분자는 차관급 이상을 가리킨다. 중국 언론은 시진핑 집권 이후 이제까지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올해 첫 낙마한 호랑이는 아무개라는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불잡힌 부패 호랑이 수 해마다 늘어 호랑이 숫자도 줄지 않았다. 2013년 21명이던 고위 부패사범은 2014년 41명으로 치솟았다가 이후 20-30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된 2023년에는 45명, 그리고 지난해엔 무려 5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기한 게 때릴수록 또 잡을수록 호랑이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중국 당국이 반부패 캠페인을 벌일 때 원래의 계산은 이렇다.

1만 명의 부패 공무원을 숙청하면 국가는 전체 공무원 숫자에서 1만 명을 뺀 만큼 깨끗해진다. 10만 명을 잡아들인다면 국가는 10만 명만큼 더 깨끗해지는 셈이다.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를 시진핑 주석의 탄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진핑은 연초 중앙기율위 회의에 참석해 눈에 띄는 발언을 했다. “부패의 준량(存量)은 아직 깨끗이 치우지 못했는데 증량(增量)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준량은 재고 또는 저장량이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의미는 아직 척결되지 않은 부패사범을 가리킨다. 증량은 증가량으로 새로 부패를 저질러 탐관오리 대열에 합류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시 주석의 말은 때려잡아야 할 호랑이와 파리, 여우가 아직도 즐비한데 이들이 새끼를 계속 치니 막말로 환장하겠다는 고백에 다름아니다. 그래서인가. 시 주석은 이날 “부패는 중국 공산당이 부닥친 최대 위협”이라며 “반부패의 영원한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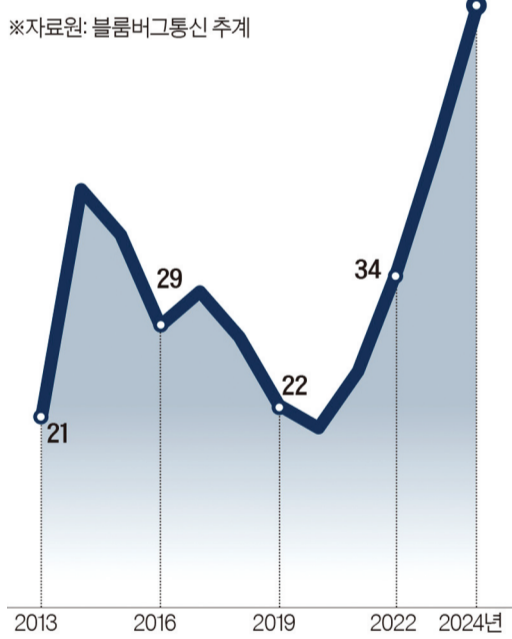
한데 정작 눈에 띄는 건 회의 폐막 이후 중앙기율위원회가 공보를 통해서 밝힌 올해의 주요 반부패 대상이다. 지난해 중국은 금융과 국유기업, 에너지 부문을 중점 단속했다. 그러나 올해는 소방과 대학, 스포츠, 개발구 등을 집중 쟁기겠다며 특히 파리의 탐욕과 개미의 부패를 지적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는 털끝부패에 해당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바로 민초의 생활과 직결된 부패를 가리킨다.

올해는 뱀의 해인데 중국에선 오래전부터 세 마리의 뱀이 인민을 괴롭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은 뱀, 흰 뱀, 안경 뱀 등이다. 검은 뱀은 검은 법외가



중국 사정당국의 갑날은 올해 민생과 직결된 부패를 정조준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후베이성 황시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천쉬위안 전 중국측 구협회 주석의 모습. 약 15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천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AFP=연합뉴스)

## 시진핑 집권 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간부 숫자



판치는 법원을 말하고 흰 뱀은 흰 가운을 착용한 병원을 일컫는다. 그리고 안경 뱀은 학교 선생님이 대개 안경을 쓰고 있는 걸 빗댄 말로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부패를 일컫는다. 이 세 종류의 뱀은 대중이 한평생 살면서 좀처럼 피해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중국 당국이 올해 중점적으로 때릴 부패 분자는 바로 호랑이처럼 고위직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부패사범 즉 하급 관리인 것이다. 중국은 왜 이렇게 태

차관급 이상 호랑이 잡기 운동서 생활밀착 하급관리 때리기 전환 50만개 마을 수사관 수만명 파견

전국 곳곳 간수·유치장 늘리기 한창 돈 싸 들고 해외로 ‘차이나 런’ 급증 지난해 갑부 1만5000명 빠져나가

세 전환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거론되는데 우선 호랑이 때리기는 고위층 투쟁을 야기해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지난 2년간 전개된 군부 숙청은 자칫 시 주석의 입지마저 흔들 위험이 있다고 한다. 또 10년 넘게 호랑이를 잡았지만 일반 백성을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갈수록 멀어지는 민심을 불복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침체와 청년 실업

## 중국의 반부패 구호

- 천리 제방도 개미구멍 훼손에서 시작된다
- 호랑이든 파리든 다 때려잡아라
- 장사가 썩은 팔을 잘라내는 용기로 부패적결에 나서라
- 병든 나무는 치료하고 썩은 나무는 뽑는다는 자세로 반부패 투쟁에 나서라
- 부패는 당의 생명력과 전투력을 위협하는 최대 악성종양이다
- 파리의 탐욕과 개미의 부패도 처벌하라
- 영원히 반부패의 돌격나팔을 불어라
- 반부패는 가장 철저한 자아혁명으로 한발도 실수 없고 반걸음도 양보할 수 없다

를 제고 등 인민의 삶이 날로 고단해지며 차곡차곡 쌓인 불만이 폭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놀란 중국 당국은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생활이 힘든 건 당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고강변한다. 문제는 당의 방침을 집행하는 말단 관리들에 있다면서 그렇기에 당이 지금 나서서 이들을 때려잡는 것이라고 해명한다. 행동은 시작했다. 이미 지

난해 말부터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국 50만 개의 촌(村)급 농촌 마을에 수만 명의 부패 조사관을 파견했다고 한다. 역대 중국 왕조의 행정은 촌 위인 현(縣)급 정부에만 미쳤는데 공산당 정부의 반부패 손길은 중국 전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다.

중국은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각지에 구치소와 감옥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느라 바쁘다고 한다. 호랑이 숫자보다는 파리와 개미 숫자가 훨씬 많기에 이들을 수용하려면 보다 많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 CNN은 중국이 새로운 유치시설을 짓기 시작한 게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2018년부터 이미 중국 전역에 200여 개의 전문 유치센터가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런 결과로 중국에선 이제 새로운 직업마저 생겨났다는 게 최근 홍콩 언론의 보도다. 불잡혀 오는 공무원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이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대거 필요해졌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월 2000-6000위안을 받으며 하루 3교대로 구금된 이들이 혹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을까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많게는 수백 명까지 이런 감시 인력을 배치한 중국의 성(省) 정부가 15개에 이른다 고 한다.

중국의 록펠러 가문도 캐나다로 이주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는 대책이 있다’ (上有政策 下有對策)는 건 중국의 유명한 말이다. 사정의 갑날이 호랑이를 넘어 파리와 개미에까지 미치게 되자 해외로 뛰는 이른바 ‘차이나 런(China Run)’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선 ‘run’과 발음이 비슷한 ‘뽀’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중국 빠져나가는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중국의 모든 계층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된 2022년 가을 당 대회 이후 벌어지고 있다.

돈이 있는 이들은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로 뛰지만 서민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선택 사항으로 꼽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이가 일단 몰도바로 가 비자를 받은 뒤 그걸 이용해 뉴질랜드 등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물론 해외로 가는 이가 모두 도망자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을 떠나는 점은 중국 사회가 매력을 잃었다는 점을 말한다. 지난해 초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가 된 이주 사건이 하나 있다.

상하이의 한 이사업체가 자랑 삼아 인터넷에 올리며 알려지게 된 것인데 중국의 록펠러가문이라는 말을 듣는 롱(榮) 씨 집안이 최근 캐나다로 이주했다는 거다. 롱 씨 집안이란 국가부주석을 지낸 롱이런(榮毅仁) 가문을 가리킨다. 롱이런은 홍콩 자본가로 유명하다. 중국 공산당이 건국 행사 때 쓴 모든 호화 차량이 롱 씨 가족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롱 씨 집안은 한국전쟁 발발 시 중국군에 12대의 전투기를 기증했다.

롱이런은 또 덩샤오핑의 위임을 받아 홍콩에 중국신탁투자공사를 세우기도 했다. 이 회사는 훗날 세계 500대 기업 중 하나인 중신그룹(中信集團)이 된다. 그런 집안마저 중국을 떠났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크다. 영국의 투자이민자문회사 헨리&파트너스의 연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중국 부호 1만5200명이 중국을 빠져나갔다.

시진핑의 계속되는 반부패 운동에도 중국의 부패는 왜 끝나지 않나? 가장 중요한 건 공산당 일당 독재의 체제 문제가 꼽힌다. 정부를 견제할 의회나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과 언론이 부재하니 부패는 척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데 시진핑은 왜 계속 반부패를 외칠까? 반부패가 통치의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 혐의도 정적을 숙청하고, 몰수한 재산을 요긴하게 쓸 수 있으며 민중의 불만을 다룬 데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